

“광주교육청 인건비 예산 585억 과다편성”

2012~2013년 2년간 전남교육청은 768억 불용 감사원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

광주시교육청이 2012~2013년 2년간 인건비 예산 585억여원을 과다 편성한 뒤 쌓아둔 것으로 감사결과 적발됐다. 전남도 교육청도 같은 기간 더 많은 768억여원이 과다편성했다.

감사결과, 2011~2013년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연평균 불용액은 1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나 시설사업비를 부풀린 것이 다. 광주시교육청은 과거(2011~2011년 평균) 결산자료 대비 본예산 과다편성액이 2012년 190억7700만원, 2013년 128억5400만원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산액 대비로는 2012년 338억6200만원, 2013년 246억4000만원이 과다 편성됐다. 2년간 585억2000만원이나 더 편성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과거 결산자료 대비 본

예산 과다편성액이 2012년 106억5000만원, 2013년 70억4100만원이나 됐고, 결산액 대비로는 2012년 503억3800만원, 2013년 265억5300만원 과다 편성됐다. 2년간 768억9100만원을 과다편성에 쓰지도 않고 쌓아둔 셈이다. 감사원은 이같이 지방교육청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쌓아놓은 액수가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윌돈을 이자율(4.85%)이 높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쓰지 않은 채 이자율(2.24%)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들 13개 교육청이 관리중인 3305억원의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쓸 경우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이자비용 148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가 매년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학급경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 보통교부금도 곳곳에서 누수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2008~2014년 학급경비를 산정하면서 매년 1029~1646개의 학급을 중복 집계해 7년간 211억원을 과다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순태 칼럼

밤 10시가 넘은 학원이 딱뚝이 가게에 고등학생 셋이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진 채, 걸신 들린 듯 배를 채우고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보였다. 새벽밥을 먹고 집을 나서,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보내고, 저녁 도시락을 까먹은 다음 학원으로 직행, 4시간동안 수업을 받았다. 몸피와 키는 어금지금하고 모두 안경을 착용했으며 명품 패딩점퍼를 입었다. “일요일에 피시방에서 축구 볼래? 맨유와 토트넘 경기 중계한다는데~” “나는 잠 잘 거다. 일요일 꼭 자뉘야 또 한주일을 버틸 수 있지.” “아주, 누가 들으면 열공 꺼나 하는 거 같네. 그나저나 진로는 정했니?” “진로?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어. 나의 미래는 안갯속이야.” “나도 그래. 처음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로 포기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새벽밥 먹고 가

우고 SNS에 앱(App)을 설치하여 자식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찍으면 즉각 부모 스마트폰에 문자가 뜨도록 한 다는, 궁여지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꿈을 잃은 무기질 생명체가 되어버렸는가. 80~9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대통령이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우주선이 날아라에 갔을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88올림픽과 월드컵 이후 운동선수를 꿈꾸는가 했더니, 한류 열풍을 거치는 동안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지금은 더욱 치열해진 입시 위주 교육 현실에서,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버린 것 같다. 내가 어렸던 시절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꿈만은 화려했다.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이 세상 어디든지 새처럼 날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 한사과 의과대학 가기를 원했던 아버지에게 “나는 무지개

아이들아, 인생은 스펙트럼 같단다

방 메고 집을 나와서 종일 졸리다가 이렇게 밤늦게 들어가는, 지겨운 일상이 멈추기만을 기다릴 뿐이야.” “나들 티브이 봤니? 교육부에서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건물 옥상 철문을 잠그기로 했다. 스마트폰에 자살이라는 단어만 찍어도 부모님 휴대폰에 뜨도록 한다더라. 웃기지 않니?”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은 채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다.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열정도 욕망도 없이, 그냥 학교생활이라는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 살아 무기력하게 매몰되어 갈 뿐이다. 최근 유니세프가 조사한 결과, 2013년 세계 30개 국 중에서 한국 아이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1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돌 중 한 명이 학교에서 성적과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18.5%로 26위다. 이렇듯 학업스트레스는 높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다 보니 학생들의 삶에 대한 자신감도 60.3%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청소년 1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 교육부에서는 자살을 막기 위해 옥상 철문에 열쇠를 채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니까, 시인이 되겠다.”고 했다. 그 무렵 나는 C.D 루이스 저서 ‘시학입문’ 서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왜 시를 쓰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시를 쓴다 라고 대답하곤 한다.”는 대목을 아버지께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놈이 미쳤나? 하는, 한심한 표정으로 나를 뚫어저쳐 바라보실 뿐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것. 꿈을 잃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인생은 스펙트럼 현상과 같은 것이다.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은 여러 가지 화려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 스펙트럼 현상이란 햇빛과 같은 백색광이 무지개처럼 여러 빛깔로 나뉘는 빛의 분산을 말한다. 프리즘은 빛의 분산 굴절을 일으키기 위해 유리나 수정으로 만든 삼각기둥 모양의 광학장치다. 프리즘은 다양한 굵고 열린 사각이다.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상상을 초월한 여러 가지 빛깔의 스펙트럼 현상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소셜가>

화순에 민물고기 양식단지 격지·동자개 등 어종 생산

해양수산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화순 등에 4개 민물고기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화순 양식단지는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70억 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투입해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4만 4000㎡ 규모로 조성된다. 화순 양식단지에 순환여과식시스템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생태양식을 도입해 우리나라 고유어종인 격지·동자개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한·중 FTA 발효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오는 4월 2일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을 앞두고 광주 승정역에서 충북 오송역 간(182.3km) 시승도 중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2구간 신설안, 증편과 요금인하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컨벤션뷰로 대표 공모 국정원 간부 출신 발탁 관심

국제회의와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설립된 광주컨벤션뷰로의 새 대표이사 공모에 국정원 간부 출신이 지원해 발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 모집에 다양한 인맥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간부 출신이 응모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시민시장’을 자처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컨설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광주컨벤션뷰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감된 광주컨벤션뷰로 대표 이사 공모에 국정원 간부 출신 A씨와 시민 사회 활동가, 관광업계 전문가 등 7명이 접수했다. /박진표기자 lucky@

“호남KTX 2단계 공사 계획 박대통령이 결정해 달라”

<광주 송정~목포>

이낙연 지사 “1단계 19km 우회 요금 제외해야”

이낙연 전남지사가 호남고속철도 1단계(용산~광주송정) 개통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에게 2단계(광주송정~목포)에 대한 계획을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2단계 노선에 대해서는 신설 설치, 무안공항 경유 등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노선 문제를 조만간 매듭지어줄 것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요청했다. 17일 오전 9시5분 사전점검 중인 충북 오송행 호남고속철도에 오른 이 지사는 이날 “1일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에 맞춰 박 대통령이 2단계 공사에 관해 분명한 언급을 해주셔야 한다”며 “애매하게 말하게

나 말씀이 없을 경우 굉장히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요금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안이 아니라)오송을 분기점으로 하면서 19km를 양보한 것이 요금으로 합산될 줄은 몰랐다”며 “이는 당시 추경직 건교부 장관의 발언은 물론 사회 통념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으로 광주송정에서 서울 용산까지 실제 알려진 것처럼 1시간33분이 소요되는 열차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속철 취지에 타당하도록) 1시간33분 소요 편수를 늘려

가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이며 19km에 대한 요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에 대해서는 “시속 200여km의 기준선을 이용하고, 무안공항에 지선을 뚫었다는 기재부 내 일부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며 “최근 최경환 부총리에게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며, 영터러 노선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이로 인한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사전점검에 참석한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도 이 지사와 뜻을 같이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 제품은 '의료가 아니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실적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 첫째, 한달 3~4만원!!
- 둘째, 전부 무료
-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 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입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강안본사 02)2248-5600 ◆충무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경성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월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 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대전동구본점은 대한보청기와 우송대학교 언어·청각학과가 공동 인턴쉽 및 연구 협력도 하고 있다.

※ 상기본사직원은 전국 어느 지점을 가나 동일한 시스템(제품·가격·서비스)을 합니다.